

제주 서쪽 바다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해가 기울고 바람이 곁을 바꿀 때 비로소 자신의 색을 드러낸다. 애월과 한림 일대는 해안도로가 길게 달리고, 마을마다 숨구멍처럼 트인 옥상이 많다. 어둠이 내려왔고 난 뒤, 루프탑에 오르면 물결 소리와 은은한 조명, 보름달 같은 유리잔의 반짝임이 곱친다. 관광지외의 번잡을 피하고 싶을 때, 거기서 밤을 시작하면 좋다. 몇 해 동안 이 동네를 오가며 찾은 옥상들을, 각자의 분위기와 실용적인 정보까지 곁들여 소개한다.

밤의 바람을 고르는 일

제주 야간 루프탑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바람이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분위기를 결정한다. 서풍이 센 날에는 파도가 높고, 2층 이상의 루프탑은 잔이 쉽게 식고 목소리가 날아간다. 반대로 남동풍이 약한 날이면 파도는 잔잔하고, 유리 난간이 있는 옥상에서는 대화가 잘 들린다. 봄과 가을에는 밤기온이 12도 안팎, 체감은 더 낮다. 얇은 겂옷 하나가 밤 시간을 늘려준다. 여름 한철엔 축축한 해무가 올라오는 날이 있다. 해무가 끼면 조명과 음악이 공간을 몰아주고, 시야는 짧아지지만 분위기는 좋아진다. 비가 억수로 내리지 않는 한, 차양이 있는 루프탑은 의외로 괜찮다. 바닥이 타일인 곳은 물기 때문에 미끄럽다. 구두보다 바닥 마찰이 있는 운동화가 안전하다.

애월 해안, 조용한 불빛과 긴 파도

애월은 카페 골목으로 유명해졌지만 밤에는 곁이 바뀐다. 낮 동안 관광객이 채웠던 테이블이 비고, 근처 숙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두 잔을 찾는다. 장소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특징을 남기겠다. 손님이 물리는 성수기에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첫째, 해가 지기 30분 전에 도착해 자리를 고른다. 석양이 사라질 즈음, 하늘의 붉은 기운이 잔에 마지막으로 비치 때 사진을 한 장 남기면 충분하다. 이후에는 카메라 내려놓고 파도 소리를 듣는 편이 좋다. 둘째, 해안도로 쪽 창을 등지고 앉기보다 옆으로 두고 앉는다. 시야에 조명과 파도가 동시에 들어오면 눈이 덜 피곤하다. 셋째, 만석 이더라도 옥상 끝 자리는 급격히 추워진다. 바람막이가 있는 중간 라인을 고르면 체감이 다르다.

애월의 한 루프탑 바는 낮에는 브런치, 밤에는 위스키와 하이볼을 낸다. 시그니처로 한라봉 스프리츠를 내는데, 단맛이 과하지 않고 껍질 오일을 살짝 뿌려 향이 오래간다. 컵은 로우볼, 얼음은 큼직하고 투명한 편이라 시간이 걸려도 물이 급하게 생기지 않는다. 이 집의 장점은 음악 볼륨을 밤마다 조절한다는 점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센 날은 잔잔한 재즈를, 맑고 사람이 많은 날은 템포가 빠른 팝을 탄다. 취향을 타지 않게 세팅하는 솜씨가 있다. 단점도 있다. 계단이 가팔라서 두 손에 잔과 접시를 들고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동행이 있다면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

또 다른곳은 옥상에 작은 화덕과 난방 버너를 둔다. 늦가을에 가면 자리마다 담요를 건네는데, 세탁 주기가 자주라 부담이 적다. 얇은 슬라이스 오징어와 버터, 고추장을 곁들이는 간식이 의외로 잘 맞는다. 수분이 날아가고 버터가 파인애플처럼 향을 내는 순간이 있다. 과한 메뉴는 없다. 맥주 라인은 페일에일과 라거, 제주 로컬 병맥 하나 정도. 하이볼은 정직하지만 소다의 기포가 세지 않다. 기포 신선도를 중시한다면 병 탄산수를 따로 주문해 비율을 맞추는 손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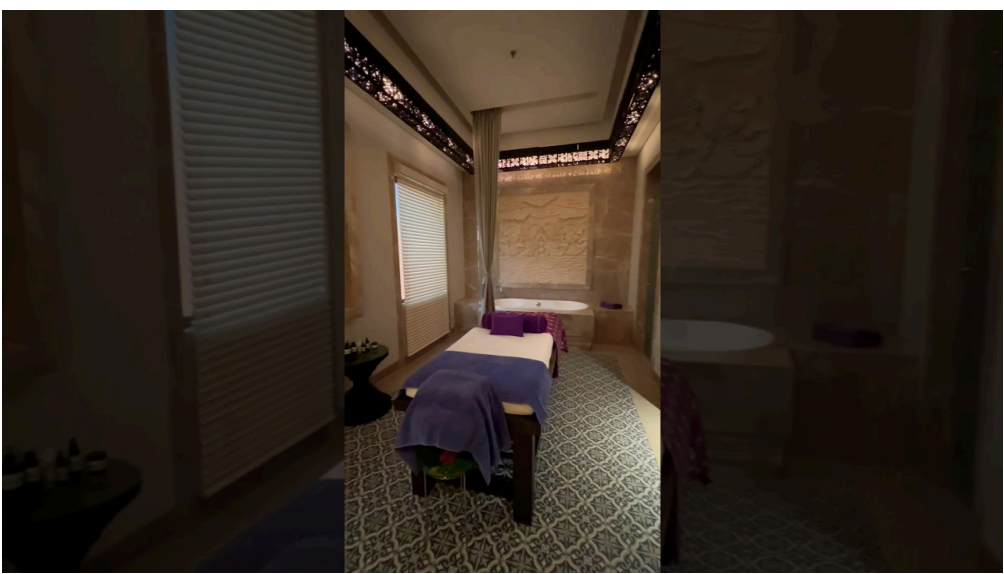
애월의 루프탑들은 규칙적으로 소등한다.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22시 30분에서 23시 사이 음악을 줄이고 조도를 낮춘다.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가려면 실내 좌석으로 옮겨야 한다. 예약 문화는 느슨하다. 주말 저녁만 피크 시간에 간단 예약을 받고, 평일엔 대부분 워크인. 하지만 대형 테이블은 빠르게 찬다. 네 명 이상이면 가벼운 예약 메시지를 보내두는 게 편하다. 주차는 해안도로 공영주차장에 하는 게 좋다. 골목 안쪽은 민박과 주택이 촘촘해 자정 넘어 시동 소리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림의 밤, 더 로컬하고 덜 꾸민 옥상

한림은 협재와 금능의 하얀 모래를 끼고 있지만, 밤엔 관광객 동선이 확 줄어든다. 여기 루프탑 바의 매력은 덜 꾸민 무심함, 그리고 물빛이 남긴 잔광이다. 해가 떨어지면 협재 앞바다는 네온과 거리가 생긴다. 달빛이 있는 날은 바다 표면이 금속처럼 차갑게 빛나고, 없는 날은 잉크처럼 어둡다. 둘 다 좋다.

한림 읍내 쪽에 있는 작은 루프탑 선술집은 메뉴판이 한 장이다. 소주, 맥주, 하이볼, 그리고 간단한 튀김. 대신 바람을 막아주는 폴딩도어가 있고, 천장에 히터가 달려 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에는 사장님이 별자리 앱을 켜서 북두칠성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유난스럽지 않은 친절이 공간의 공기를 바꾼다. 단골들이 가져다 놓은 초록 식물들이 낮에 햇살을 받다 밤이면 그림자만 남는데, 그 그림자 덕에 조명이 더 따뜻해진다. 여기의 단점은 화장실이 1층 외부라서 비 오는 날 불편하다는 점. 장점은 문 닫는 시간이 유연하다는 점이다. 사람이 드물고 분위기가 좋으면 0시 가까이도 문을 연다. 다만 소음에 민감한 동네라 옥상에서의 큰 소리는 금물이다.

협재 해변 길 건너, 숙소 겸 카페로 운영하는 건물의 옥상은 전망이 좋다. 한림항 방향의 불빛이 선으로 이어지고, 잔잔한 날이면 어선이 느린 점이 된다. 음료는 기본 이상, 특히 토닉의 비율을 잘 맞춘다. 글라스마다 차가운 결로가 맺히는 시간 동안 들고 서 있어도 손에 물이 묻지 않게 코스터를 넉넉히 준다. 이 집은 촛불을 쓰지 않는다. 바람이 바뀌는 제주 밤에 촛불은 위험하다. 대신 난간 아래 간접조명을 깔아 얼굴이 사진에 과하게 밝지 않게 한다. 뷰를 택했기에 음악은 배경에 가깝다. 그 덕에 파도 소리와 대화가 섞인다.



조명과 음악, 루프탑의 절반

좋은 루프탑의 절반은 조명이다. 조도가 낮되, 테이블 위에만 작은 포인트를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과한 색 온도는 음료 색을 바꾸고 음식의 질감을 밋밋하게 만든다. 애월과 한림의 여러 곳을 돌며 느낀 건, 2700K에서 3000K 사이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한 곳이 사진도 실물도 모두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백열색이 아니라 골드빛에 가까운 색감이 술잔을 투명하게 만든다. 간접조명이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 눈이 바다를 다시 찾는다. 루프탑은 결국 수평선을 보는 장소다.

음악은 취향이 갈리지만, 공간의 소음과 바람의 세기에 묶인다. 바람이 세면 고음이 먼저 씻겨 내려간다. 그래서 중음이 풍성한 곡이 더 잘 들린다. 라틴 재즈나 90년대 네오 소울이 이곳에서 어울리는 이유다. 흥을 돋우고 싶다면 템포를 올리기보다 볼륨을 살짝 키우는 편이 낫다. 제주 밤엔 손님들이 서로의 대화를 존중하려는 흐름이 있다. 음악이 과하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메뉴는 단출하게, 재료는 정확하게

루프탑 경험에서 음식이 모든 걸 좌우하진 않지만, 한두 가지 메뉴가 밤을 길게 만든다. 통오징어 구이를 얇게 잘라 매콤마요와 내어주거나, 감자튀김에 다시마 가루를 살짝 더해 바다 향을 보태는 식의 소품이 좋다. 애월의 한 곳은 토마토를 냉실에서 낮게 식혀 올리브오일과 소금만으로 내는데, 술과 잘 맞는다. 재료가 산뜻하면 입이 무겁지 않다. 반면 과하게 달거나 끈적한 소스는 바람과 맞지 않는다. 한림의 루프탑 중 한 곳은 제주산 시금치를 살짝 데쳐 참깨와 간장으로 무쳐 준다. 상이 투박하지만 유리잔과 어울린다. 사소한 디테일이 오랫동안 회상에 남는다.

음료 쪽은, 하이볼의 기분을 지키는 곳이 강하다. 위스키 40 ml에서 50 ml 사이, 큰 얼음, 차가운 톤의 토닉 또는 소다, 레몬 제스트 한 줄. 이 비율만 지켜도 실패가 없다. 감귤류를 쓰겠다면 과육을 으깨 넣지 말고 껍질 오일만 사용한다. 과육은 기포를 죽인다. 제주 흑보리 라거나 로컬 페일에일은 여행객들이 좋아하지만, 밤공기와 오래

두고 마실 생각이라면 도수 4%대의 크리스탈 라거가 낫다. 호불호가 갈리는 탄산수 첨가 칵테일은 유리잔의 입구가 넓은 제품을 쓰는 집이 더 향이 살았다. 향이 먼저 코에 닿기 때문이다.

계절별 추천 타이밍과 좌석 고르는 법

여름 성수기의 루프탑은 해가 늦게 진다. 19시 40분 전후로 노을이 길게 이어지고, 20시 무렵이 가장 붉다. 해가 완전히 사라진 후 20분 정도는 하늘이 푸르스름한 시기를 유지한다. 그때 사진은 잘 나오지만 사람은 많다. 여유를 원한다면 21시 이후를 권한다. 자리가 빈다. 가을에는 18시 20분 이후가 노을 타임이다. 바람이 강하니 바람막이와 히터가 있는 좌석을 찾는 편이 좋다. 겨울은 루프탑의 비수기. 하지만 맑은 날, 별이 또렷하고 공기가 매서울 때 간단한 한 잔은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다. 담요를 대여해 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직접 챙기면 체감이 달라진다. 봄은 황사가 오는 날을 피하자. 공기질이 좋지 않으면 조명도 탁해 보인다.

좌석은 난간 옆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대개는 한 칸 뒤가 더 편하다. 난간 바로 옆은 바람이 맞고, 지나가는 손님들의 동선도 겹친다. 조명기구 바로 아래는 벌레가 모일 수 있다. 조명이 눈높이보다 낮게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스피커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진 자리가 가장 편안했다. 무선 스피커가 설치된 곳은 테이블 가까이에 볼륨이 변하는 구간이 있다. 자리에 앉아 테스트 삼아 10초 정도 귀를 기울이면 금방 감이 온다.

소음과 예절, 그리고 동네의 밤

제주의 루프탑은 동네 속에 있다. 숙소와 주택이 섞여 있고, 민원이 쌓이면 먼저 영업시간이 줄고, 다음엔 옥상이 닫힌다. 길에서 소리 지르는 집단 여행객을 보면 업주가 좌불안석이다. 타지에서 온 우리에게 밤의 권리는 있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겐 밤의 일상이 있다. 옥상에서의 사진 촬영도 조심스럽게 하자. 플래시는 생각보다 멀리 간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많고, 허가 없이 띄우면 벌금 대상이다. 업장 내부 촬영은 반드시 직원에게 한 마디 묻자. 그 한 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쓰레기는 테이블에 모아두면 직원들이 수거한다. 유리잔은 바람에 취약하니 바닥에 내려놓지 말자. 애완동물 동반은 절반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가능하더라도 리드줄을 짧게, 다른 테이블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계단이 가파른 건물은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다.

교통과 귀가, 작은 전략

서쪽 바다는 대중교통이 이른 시간에 끊긴다. 21시 이후 버스 배차는 30분에서 1시간까지 벌어지고, 택시는 피크 시간에 오래 기다려야 한다. 술자리를 계획할 때 귀가를 먼저 정해두면 편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소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잡는 것. 애월 해안도로 주변에는 도보권 게스트하우스와 소형 호텔이 여럿 있다. 한림 협재 쪽도 비슷하다. 차를 가져왔다면 운전은 미루자. 서쪽 해안도로는 밤에 단속이 잦고, 골목은 일방통행이 많다. 돌아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이 드물다. 물을 미리 챙겨두면 다음 날이 다르다.

비와 안개, 오히려 좋은 밤

비가 조금 오는 날의 루프탑은 운치가 있다. 천장 차양이 있는 곳을 고르면 옥상에서도 충분히 앉을 수 있다. 가벼운 비는 조용한 배경음을 만든다. 안개 낀 날은 시야가 20미터도 안 되지만, 그만큼 공간이 자신에게 집중된다. 이런 날은 강한 술보다 알코올 도수 낮은 칵테일이나 가벼운 맥주가 잘 어울린다. 기분이 차분해지기 때문인데, 음악도 볼륨을 낮게 유지하는 곳이 많다. 카메라 렌즈는 금방 습기를 머금는다. 렌즈 교체식 카메라를 들고 왔다면 건물 안에서 렌즈를 교체하자. 외부에서 교체하면 습기가 내부로 들어가기 쉽다.

예약과 웨이팅, 현지의 리듬

애월과 한림은 예약 문화가 느슨하지만, 여름 주말에는 루프탑 좋은 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문 여는 시간을 노리면 성공률이 높다. 오픈런까지는 과하지만, 영업 시작 후 30분 이내면 난간에서 한 칸 뒤의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웨이팅이 생기면 업장들은 대개 건물 1층이나 골목의 지정 구역에서 줄을 만든다. 길을 막지 않기 위해 직원들이 동선을 관리한다. 웨이팅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다른 집의 1층 바 또는 옆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돌아오는 방식도 좋다. 이런 곳들은 서로의 [오피사이트](#) 동선을 이해하고, 손님들이 중간중간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한다.

안전, 소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

계단 난간이 낮은 곳이 있다. 술잔을 들고 오가다 보면 시야가 아래로 좁아진다. 발목을 잡는 건 대개 작은 단차, 즉 3에서 5센티미터의 턱이다. 밤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스텝들이 유도등을 켜주면 그나마 낫다. 샌들보다 닫힌 신발이 낫다. 유리잔 파손은 금세 청소되지만, 발가락 한 번 다치면 여행 전체가 바뀐다. 바람이 부는 날엔 모자를 쓰지 말자. 바람이 가져간다. 긴 머리는 묶으면 잔에 닿는 일이 준다. 이런 자잘한 것들이 밤을 길게 늘려준다.

또 하나, 비상 탈출 동선을 머릿속에 넣자. 대개 루프탑은 출입구가 한 곳이다. 만석일 때 잠시라도 위치를 확인해 두면 좋다.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은 좋은 친구지만, 테이블에서 바로 켜면 옆 사람의 눈을 자극한다. 손등으로 가리고 켜면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이 남는다.

사진과 기록, 과하지 않게 남기는 법

이곳의 밤은 기록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면 소리를 놓친다. 사진을 남길 때는 두 번이 좋다. 해가 지기 직전 1회, 조명이 안정된 후 1회. 그 사이에는 카메라를 내려놓자. 인물 사진은 조명을 등지고 찍으면 얼굴이 어둡다. 옆광으로 틀고, 테이블 조명이 들어오도록 앵글을 잡는다. 루프탑 난간 위에 장비를 올려두지 않는다. 바람이 장난삼아 가져가 버린다. 삼각대는 좁은 테이블에서 부담이 된다. 그럴 땐 벽에 기대고 셔터 속도를 조금 올리면 흔들림을 줄인다.

예산 감각, 가격의 합리성

한 잔의 가격은 지역 평균이 있다. 애월과 한림의 하이볼은 보통 9천원에서 1만4천원 사이. 위스키 베이스에 따라 달라진다. 병맥주는 7천원에서 1만원, 로컬 크래프트는 1만1천원 전후. 간단한 안주는 8천원에서 1만5천원 사이가 많다. 전망과 좌석의 쾌적함, 조명과 사운드의 품질을 생각하면 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뷰가 뛰어난 집은 한두 품목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같은 돈이면 바람이 덜한 좌석과 친절한 서비스가 더 만족스럽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2인이 2잔씩과 간단한 안주 하나를 나누면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마무리된다.

현지의 정서와 여행자의 균형

서쪽 제주에서 느끼는 건, 빠르게 변하는 동네와 지켜내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루프탑이 생기고, 기존의 옥상이 문을 닫기도 한다. 그 사이에서 낯선 손님과 익숙한 이웃이 균형을 만들어 간다. 손님이 조용히 잔을 기울이고, 업주는 적당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을 켜고, 동네는 견딜 수 있는 선에서 밤을 받아들인다. 여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다. 다만 욕심을 줄이고, 시끄러움보다 여유를 택하면 된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공간들은 오래 남는다.

지역별 간단 체크리스트

- 바람 확인: 서풍 강한 날은 난간 옆 피하고, 남동풍 약한 날은 상관없다.
- 좌석 선택: 조명이 눈높이보다 낮은 자리, 스피커와 3미터 거리.
- 귀가 계획: 숙소를 도보 10분 내에, 혹은 택시 호출 여유 시간 확보.
- 보온 대비: 늦봄부터 가을까지 얇은 겉옷, 겨울엔 담요 지참.
- 예절 기본: 플래시와 큰목소리 자제, 유리잔 바닥 놓지 않기.

밤을 길게 만드는 마지막 한 잔

한 번은 10월의 어느 토요일, 한림의 조용한 옥상에서 마지막 잔을 천천히 마셨다. 바람이 잔의 얼음을 흘기듯 건드렸고, 멀리서 파도가 모자란 내 이야기를 채워줬다. 둘러앉은 손님들의 표정은 각자의 하루를 닳아 있었고, 조명은 얼굴들을 과장하지 않았다. 그때 느꼈다. 좋은 루프탑은 야경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온도와 소리, 조명과

친절, 그리고 손님 태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 애월과 한림의 밤은 그 점에서 합격점이다. 여행자가 들어가고, 동네가 받아들이고, 바다가 배경을 맡는다. 이런 밤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니 올 때는 제대로, 소란스럽지 않게, 길게 즐기자.